

연중 제18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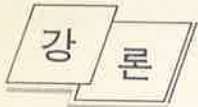
제1독서 : 출애 16, 2-4, 12-15

제2독서 : 에페 4, 17. 20-24

복음 : 요한 6, 24-35

# 순정이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6, 35)



## 욕심과 성체



정승현 신부 / 성글라라 봉쇄수녀원

하느님은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하느님이 베푸시는 것 중에서 풍성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물도 공기도 생명도 양식도 그렇습니다. 만일 하느님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베푸신다면 사람들은 아우성을 칠 것이며,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법석을 떨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넉넉히 베푸십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보리라.” 이 말씀을 거역하고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들인 만나를 썩어 구더기가 쾅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늘의 새나 들의 꽃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우리를 알뜰하게 먹여 기르시는 하느님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십니다(제1독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고 욕심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도 오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찬 ‘기적의 뜻’은 필요한 대로 나누어 먹을 때 것처럼 풍성해진다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함께 나누기만 하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복음).

욕심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오늘 이 사회의 모든 문제 - 정치, 경제, 교육, 군사, 과학, 환경, 주택, 종교, 사회, 남북 문제 등 - 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버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사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 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사람으로 갈아 입어야 합니다. 새사람은 올바르게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제2독서).

욕심 때문에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신자는 성체성사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체성사는 무욕(無慾)의 나눔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성체성사는 무욕의  
나눔입니다.



# 헤어질 때와 다시 만날 때

신 광 연(가브리엘)

얼마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81세 고령의 한 교포 할머니가 6·25때 헤어져 북한에 살고 있는 장남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기쁨을 가누지 못해 졸도해 한 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15년 전 치과의사인 셋째 아들과 함께 이민갔던 이 할머니는 지난 6월 초 평양에서 고위 공직자로 있는 환갑나이의 장남으로부터 사진과 함께 “생전에 꼭 만나 뵙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고 20여일간 이 편지를 매일 밤낮으로 되읽으며 평양 방문의 날을 기다리다가 쓰러졌다는 것이다. 이같이 애절한 사연이 알려지자 그곳 교포 모임에서는 평양의 장남이 미국을 방문해 어머니와 만날 수 있도록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백악관에 청원서를 보냈는데 그 할머니가 사경에서 헤어났는지 장남의 방미 청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속보가 기다려지는 요즘이다.

매년 광복절이 들어 있는 8월을 맞으면 우리는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조국의 분단 6·25전란 등을 자연스럽게 회상하게 되고 민족의 환을 가슴 아프게 되씌으며 통일의 날은 언제나 오려나 하고 앞날을 접쳐본다.

46년 전 8월 초순께 불어닥친 세찬 태풍이 시골 마을 언덕바지 일본사람이 살던 농장집 앞마당 교목으로 자란 포플러나무 두세 그루를 부러뜨렸을 때 마을 어른들은 이 거센바람을 ‘평난(平亂)바람’이라고 말했다.

며칠 뒤 군에 갔던 그 집 아들의 전사 통보가 전해졌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바람 개인 여름 하늘 높은 구름 위로 ‘B29’라는 비행기가 은빛 날개를 햇살에 눈부시게 번쩍이며 지나가더니 어느 날 어른들은 “인자 해방이 되어 일본놈들이 쫓겨가게 됐다”며 희희낙락 기쁨에 넘쳤다. 그러나 그 환희도 잠시였고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며 싸우다가는 몇 해 만에 6·25를 맞아 천지가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다. 한마을 ‘소룡고지택’의 큰아들은 전쟁에 나가 걸봉에 “편지야 잘 가져라”고 쓴 어머니전 군사우편을 보낸 뒤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전사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6·25전란의 비극이 어떠했는지를 열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다. 3년여의 전쟁이 휴전 협정으로 일단락되면서 38선에서 군사 분계선으로 대체된 분단의 벽은 허물어질 수 없는 것인양 웅벽으로 남과 북을 갈라 놓은 채다. 그리고는 4·19, 5·16, 10·26, 5·18, 6·29로 이어진게 40~50대면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세대 격량의 흐름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보급된지도 40년

은 조히 되었음직한데 아직도 우리는 분계선 넘어 망원경으로 보이는 장산곶이며 비경의 금강산을 그리워만 하고 있다. 천만 이산 가족들의 애절한 혈육의 정은 말해 무엇할까. 월남 1~2세들의 향수 또한 얼마나 절실한 것일는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저 짐작에 그칠 따름이다. 북녘 혈육의 생사여부에도 안타까움뿐이요 조상의 무덤 성묘를 애꿎은 임진각 방문으로 대신하는 한도 마찬가지로 원정 경기에 나선 남북 단일 체육팀은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세상이 되었다.

남과 북의 정치체제의 변화는 그저 그렇고 그렇건만 세상은 변해도 많이 변했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북협상이니 평화통일이라는 낱말들이 금기로 여겨져 마음놓고 주고받지 못했던만 이제는 일본으로 그리고 포르투갈로 원정 경기에 나선 남북 단일 체육팀은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세상이 되었다.

반세기 가까이 헤어져 살았던 남쪽의 부인과 아들이 북녘땅 학자 남편이자 아버지를 제3국에서나마 상봉해 쌓이고 쌓였던 회포를 풀기도 했다. 그리고 공산세계 중주국의 원수와 한국의 대통령이 1년 사이 두 번씩이나 만나 친선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런 마당에 한핏줄의 남북동포가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불명예를 계속 견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북의 무연탄이 남으로, 남의 쌀이 북으로 오가고 백두산의 향긋한 더덕을 맛본 이들도 없지 않다. 어디 물자교역 뿐인가. 겨레의 마음속에 통일은 이미 와 있다.

다시 8월을 맞으며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뤄졌고 6·25를 통해 더욱 고착화된 분단의 해소는 우리의 사명이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진실로 민주화되어 이혼한 부부가 재혼하듯이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던 재독 교포학자의 주장을 되새겨본다.

## 숲정이 산책



불공보다 잣법에...

주님이 계시기에

#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며

문도석(베드로)/요촌 성당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같고, 한토막 밥과도 비슷하나다”(시편 90, 4).

질은 초록빛을 뿜내는 가로수 나무들과 넓다란 들판에 무르익어가는 초록빛 벼들이 어우러져 한여름의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준다.

신동 성당 사목회장의 안내로 들어선 곳은 포도넝쿨이 첫눈에 띠는 정서가 깃든 한옥집으로 고향이 이북인 두 노부부가 살고 있다. 문도석(베드로·76세) 회장님과 이윤신(아가다·76세) 할머니. 그들의 고향은 황해도 장연군 낙도면, 반동분자로 몰려 어머니와 세 아들을 남겨둔 채 야밤에 두 분은 월남했다. 그것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지막이 되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자식들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한다. 그는 충남, 경기도를 거쳐 현재의 용지 공소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 이곳 용지는 황무지 땅으로 이내 피난민 정착지가 되어 그 당시 350세대가 모여 살았다. 그중 신자가 4-5세대가 되었고 흠뻑들로 20평 남짓한 강당을 지어 공소 예절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용지 공소의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에 공소는 빛을

많이 지게 되었고 이런 때 공소회장직을 맡게 된 그는 어깨가 매우 무거웠다. “피난민을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몹시 아팠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고향없는 사람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북쪽 하늘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을 굳게 하고 공소의 빛을 갚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발농사와 논농사를 경작하여 수매를 올려 조금씩 빛을 갚아나갔다. 그리고 거의 낡아진 공소도 보수하고 신자도 증가되어 활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후 그는 마음을 쏟아 살아온 용지를 떠나 김제로 왔다. 이곳에 온 후에도 본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자 방문, 연도, 상담 등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불철주야를 막론하고 다녔다. 그는 김제지역에서 신앙의 모범으로 존경을 받으며 대자도 200여명이나 된다.

“행어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이제는 막바지에 다달았습니다. 외롭고 슬플 때 주님이 계시기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지금 몸이 아파 누워 있지만 영원한 고향을 믿고 바라는 그 눈망울은 맑고 초롱하다.

신자들의 소리

# 겨레를 살리는 통일

김익완(프란치스코)/전동 성당

국경이나 이념을 초월한 국제화의 가속화는 화해와 공존이라는 인류 융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다문화, 개방화 시대로의 변화는 이념과 체제, 사상과 종교를 초월하여 상호 이해와 일치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우리 조국도 46년 동안 심화되었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쓰라렸던 불행을 극복하고자 부심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한층 부풀어지고 있다.

조국통일 문제는 민족의 생명선이요 운명이다. 이 겨레를 살리는 길도 통일이요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도 통일이야만 된다. 우리의 조국통일은 아시아 융합뿐만 아니라 인류 평화의 표상으로 인류 역사에 분수령인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온갖 정성과 지혜를 모아야 하고 통일의 전위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착실히 공헌해야 할 것이다.

남북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고, 분단으로 인한 조국의 최대의 불행을 최대의 행운으로 바꾸어 놓는 일에 우리 모두의 연구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역사 속에 자기 확립과 도덕성의 향상도 통일 조건 구현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제의나 선언의 타협적 자세에서 진정한 도덕적 차각으로 동질성을 회복하며 이기심을 버리고 미움을 극복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는 실천 운동이 더욱 촉진되었으면 싶다.

우리 겨레가 불행하게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된 사실을 슬퍼하며 우리 동포가 서로서로 단결한다면 영광된 조국통일의 힘이 용솨음치리라고 생각하며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증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때 민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우리는 전 근대적인 요소인 공포와 멸시, 증오와 탐욕, 갈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도덕적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거부하는 도덕적 용기로서 남북동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신의를 창조하는 가운데 도덕 수준을 향상시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평화통일의 지름길이요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통 일 분 단 의

분단조국 47년, 통일염원 47년을 살아가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절실한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임무는 분명 갈라진 민족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과 실천적 행동은 7천만 겨레 모두의 몫입니다.

1988년 5월 15일, 명동 성당 교육관 옥상에 올라가 겨레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배를 가르고 흰 한복을 날리며 꽃잎처럼 떨어져 숨겨간 조성만 요셉 군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7천만 겨레 모두에게 통일의 장정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로는 고뇌하는 얼굴로 때로는 환한 웃음으로 찾아와 "이 고난과 절망의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행동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며, 7천만 겨레 모두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분명, 통일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나 기득권 수호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통일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단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반민주적·반민족적·반통일적·반인류적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헐기 위한 통일의 대장정은 민족의 새로운 삶과 창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을 딛고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은 어려운 고난의 역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시간에 입을 열어 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할 때, 누구보다도 분단의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통일의 대장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장정에 나서는 그리스도인은 분단 현실의 패스카적 변혁을 이루기 위해 분투 노력하는 신앙 실천(Praxis) 일체를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님(Lord of history)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불의한 역사



판문점 통과를 시도하는 국제평화행진대

가운데 자신을 투신코자 하는 모든 양심적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의 길'입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으로 발표된 민족통일의 기본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은 독재 정권에 의해 부정 내지는 왜곡되면서 자주·민주·평화로 대체되었지만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절명의 원칙입니다. 이를 통하여 통일과업을 이루는데 있어서 추진력이 되고 채충전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적 가치는 평화·화해·일치가 될 것입니다.

평화는 이미 주어진 것이거나 일정한 역사적 시기가 되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특히 갈라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일 때, 우선 자신이 민족과 역사 앞에 침묵해온 죄악을 반성하고 분열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고난을 무릅쓰는 노력을 통해서만, 즉 자신을 갈라진 민족의 화해를 위한 제물로 삼을 때만 분열과 전쟁을 딛고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제국주의 세력에 의하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도는 현실적인 과제로써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체결, 외국군(주한 미군)과 핵무기 철수, 남북한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늘부보쌈**

오 재 천 (인드레아)

정 봉 교 (마키엘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신속배달

**한성가스**

대표 최 영 해 (헬레나)

이리시 남중동 국도건널목 앞

☎ 855-1323, 855-1324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 (요한)

황 인 재 (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 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분과·연구과·피부마용과

이리시 중양동 3가 7-1

☎ 3-2496, 2-8653

# 장벽을 넘어서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 군비 감축 등의 실현과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과제으로써 평화 세력의 단결을 통한 전쟁 세력의 제거 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에는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일치를 위해서는 만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상과 이념, 종교와 신조를 초월한 전면적 단결을 위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단의 장벽을 쌓아 올린 분단 세력에 의해 독점되는 대화와 만남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진정한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입니다. 민주주체의 자주적인 교류만이 '만남을 단결로' '단결을 통일로' 이루어내는 유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간의 만남은 철저히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적대시해온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재의 상태를 고정 불변의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그 만남을 비뚤어지게 하고 마침내는 그 만남마저 단절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의 대상은 남과 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가 되고 있는 주체사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말하는 통일이 분단의식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거나 아니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굴복'에 의한 흡수 통합, 아니면 '적화 통일'이라는 식의 저차원적이고 일방적인 통일관의 반영일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해서, 흘리는 피 한방울 한방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단의 땅 고난의 땅에 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같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아낌없이 바쳐 투신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의 깊은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석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실천으로 고난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통일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할 우리 모두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해서, 흘리는 피 한방울 한방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 규 현 신부

## 요십이 (939) 김병오



### 샤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월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 고급 신사복 귀빈양복점

가톨릭센터 동편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지점 옆  
(85-8809, 87-4635)  
한 루 가(봉석)  
김 테레사(인숙)

### 하라컴퓨터학원

1인 1대의 철저한 개인 교육  
으로 여러분을 새로운 컴퓨터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조 영 애 (세실리아)  
송천동 비사별APT 입구  
☎ 75-5777

### 우아미가구 (중앙상가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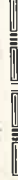
고품질 · 저렴한 가격  
철저한 서비스  
조 대 권 (요셉)  
최 현 (요셉)  
☎ 74-0831

### 성원인테리어총판

■특수 보조기 ■지동 건조대 ■수족관  
■인테리어 선반 ■원목 · 칠재가구

서 원 식 (야고보)  
고 선 규 (미카엘리)  
육지구 북부시장 내  
※ 주부사원 모집  
주 · 야 78-1941  
☎ 012-682-3111

원 자 타 침 쇼 식 일 절



"가구의 명가"

### 장인가구 (민속공예)

### 옥돌철기가구

남부지점 : 전주시 중앙동2가 가구거리  
북부지점 : 전주시 태평동1가 전주중앙상가(층6호.2층6호)  
TEL. 남부 88-9253 상가층 254-9525  
상가2층 76-9151, 하차장 82-5086  
김 성 수 · 김미남(루시아)

뿌리를 찾아서

# 임실 성당 -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권익 옹호에 큰 몫을 하는 본당

1956년 9월 6일 김현배 주교의 1군 1본당 주위에 따라 남원 본당에서 분가하여 임실 본당으로 설정되었다.

임실지역에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1882년 운암면 거뜔이 공소가 되면서부터이다. 그뒤 계속해서 공소가 세워졌고 그 공소들이 전동, 남원 본당 소속을 거쳐 임실 본당의 설립과 함께 하나의 본당을 이루었다.

1957년 8월 김후생 신부 재임시 현 본당 소재지의 대지를 매수하여 교구에서 시멘트 1,000포를 지원받고 본당과 공소 신자들의 힘을 모아 1959년 10월 준공을 보았다. 이 시기에 구호물자의 보급으로 가난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사목과 선교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덕치

면 사곡리, 관촌면 회봉리, 성수면 성수리에 있는 산을 구입하여 개간 사업을 벌여 가난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주었고, 산간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을 창설하였고, 신앙을 키워 치즈 산업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치즈공장을 지정환 신부의 땀으로 이루어 세웠다. 또 어린이 놀이터 개설로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었으며, 농민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노푼 피해 보상 운동, 소값 피해 보상 운동 등 지역 주민들의 권익 옹호에도 큰 몫을 하였다.

교회의 평신도 활동의 주축은 레지오 마리아에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꾸리아 창설로까지 발전하였으며 수녀들의 파견으로 사목의 활성화를 더해주고 있다.

임실 본당은 관할 공소들이 많고

산재해 있어서 공소 사목의 원만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월 첫째 주에 모든 공소 신자들이 본당에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체험하며 산다고 한다.



명상의 자리

## 우산장사와 짚신장사

어느 곳에 우산장사와 짚신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다.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의 상반된 장사 업종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 어머니는 해가 떠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찾아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날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해가 뜨면 작은 아들의 장사가 잘될 것을 기뻐하고, 비가 오면 큰아들의 장사가 잘될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였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니 비가 와도, 해가 떠도 걱정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안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면이 나쁘면 다른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훌륭한 지혜가 된다.

### 우리편득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성환(즈가리아)  
김명숙(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앞)  
☎ 85-8848

결혼·약혼·파티복·남복  
한복고려주단  
전광원(마르코)  
김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서동 1가 120-1  
(신촌(예식장)골목)  
☎ 88-1902

신부 부케 전문점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범디또  
☎ 84-2628

경병항공  
• 해외여행 • 여권·비자·유학  
• 신혼여행 • 국외항공권 발매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77  
TEL. (0652) 87-9797  
FAX. (0652) 86-2754  
이종길(요한)

# 교 구 소 식

## ❖ 생명 공동체 운동 강좌 개설

- 때 : 8월5일, 12일, 19일,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2-5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 회비 : 1,000원
- 주관 : 가톨릭 농민회
- 주최 : 전주교구 농민사목위원회

## ❖ M.B.W.(그리스도 공동체 수련회) 기초과정

- 때 : 8월5일-7일
- 곳 : 천호 피정의 집
- 대상 : 성직자 · 수도자 · 평신도 (남녀노소) 선착순 40명
- 참가비 : 35,000원
- 출발 : 8월5일 10시 가톨릭센터
- 접수처 : 사목국, 각 본당 사무실

## ❖ 남성 39차 꾸르실료

- 때 : 8월8일-11일
- 곳 : 천호 피정의 집

## ❖ 예비 신학생 모임

- 8월 모임은 쉽니다.

## ❖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 때 : 8월5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3층 강당
- 대상 : 사랑의 다리 회원과 사회복지활동을 후원코자 하는 분

## ❖ 가톨릭 사진가 협회 회원 모집

- 대상 :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분
- 문의 : 홍보국(85-0041)

## ❖ 축! 영명

- 8일(성도미니코) 강인찬 신부님
- 10일(성라우렌시오) 박진량, 범선배, 전대복, 박기준, 이수현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 ❖ 성바로떨수도회

- 때 : 8월4일(오늘) 오후2시
- 곳 : 성바로 서원 2층 (0652)252-3398

### ❖ 살레시오수녀회

- 때 : 8월4일(오늘) 오후2시
- 곳 :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 33-2578

## ❖ 사랑의 씨튼수녀회

- 때 : 8월4일(오늘)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3층 소성당 (0652) 212-3233

## ❖ 샬트르 성바로수녀회

- 때 : 8월4일(오늘) 오후2시
- 곳 : 숲정이 성당 수녀원 (0652)252-9567

## ❖ 살레시오수도회 여름캠프

- 때 : 8월13일-16일 참가자는 12일 오후6시까지 광주 본원으로 옴.
- 대상 : 성소에 관심있는 중3 이상의 젊은이
- 준비물 : 세면도구, 수영복, 성가집
- 참가비 : 15,000원
- 문의 : (062)55-0332

## ❖ 끈벚뫼알 성프란치스코회

- 때 : 8월16일-19일
- 곳 : 경남 양산군 하북면 용연리 1071(텃밭) 16일 오후5시까지 도착
- 대상 : 미혼 남녀(고교생 포함)
- 준비물 : 회비 5,000원, 텐트, 개인용품
- 문의 : (02)765-4230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창조 질서 보전-물을 다스립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한정된 양의 물로 살아가고 있다. 지구의 2/3를 덮고 있는 물 중에 97%가 소금물, 3%만이 담수인데 그나마 대부분은 극(極) 지방의 빙하로 얼어 있고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1%도 채 못된다. 수백만 가정에서 '염소맛'이 '후천적 입맛'이 되어버릴 정도로 소독해야 하는 오늘날의 물, 너무 흔하기에 우리는 너무 함부로 너무 쉽게 대하고 있는 것 같다.

보통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은 약200ℓ(선진국 기준)이다.그나마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하루 15ℓ 정도의 물로 살아간다. 물은 생명 그 자체이니 만큼 아껴 사용하고, 쓰고 버리는 물에도 다시 그 물을 내가 사용해야 할 것임을 생각해야겠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물을 바로 다스려 나가야 하지 않을까?

## 성공적인 삶의 비결

주 제 : 성공적인 삶의 비결  
 일 시 : 8월5일(月) 8월8일(木) 오후2시 및 7시(2회)  
 장 소 : 전주가톨릭센터 강당  
 주 최 : 한국정신과학연구회  
 연 사 : 金重培博士(말시아노)  
 문 의 : 0652-85-4102  
 참가비 : 천원  
 준비물 : 필기도구  
 ※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 · 생활용품

**이미트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선미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디도)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사무소**

☎ (0652) 87-0088  
 (주택) 83-0087, 83-0088  
 호출기 012-681-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알선

신선한 생매주와 함께 생활의  
 맛과 여유를 찾으십시오.

**카이저호프**

\*아라바이트생 모집(신자 환영)  
 ☎ 85-8801  
 (한성어관 시거리)

**제일 정육점**

한우 전문점  
 조 만기(요아침)  
 정 순이(안 나)  
 주공3단지 복합상가 내  
 ☎ 83-0348

